

아세안諸國 內에서의 共產主義運動의 實態*

金 國 振

I. 序 論

II. 東南亞의 政治的 環境: 諸葛藤의 소우스를 중심으로

III. ASEAN 諸國의 共產主義運動의

實態 IV. 結 論

I. 序 論

오늘날 ‘두개의 東南亞(Two Southeast Asias)’¹⁾로 불리워지고 있는 東南亞는 印支共產圈과 非共產 ASEAN 地域으로 나뉘어져 있다. 1970 년대 중반 베트남의 共產化 統一과 잇따른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共產化는 美國의 越南戰참전에의 주요 정책동기의 하나인 소위 ‘도미노理論(Domino theory)’의 타당성을 실증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美國의 對東南亞政策의 도미노理論의 가정은 적어도 ASEAN 제국에 관해서는 오류로 판명되고 있다.

70년대 중반 印支共產圈의 출현에 심각한 挑戰을 느낀 ASEAN 제국은 ASEAN 地域體制를 중심으로 印支共產圈의 위협에 대한 對應體制를 구축해 나갔다. 對外的으로 베트남을 포함한 美·蘇·中·日 등 주변 강대세력에 대한 對應論理로서 ‘平和, 自由, 中立(ZOPFAN)’ 정책을 표방하고,

* 이 研究는 1986年度 文教部 共產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1) Donald E. Weatherbee, "US Policy and the Two Southeast Asias," *Asian Survey*, Vol. XII, No. 4, April 1978, pp. 408~421.

對內的으로 共產主義勢力의 침투 및 영향력확대의 견제를 겨냥한 ‘國家 및 地域抵抗力(national and regional resilience)’ 이데올로기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²⁾

한편 印支共產圈은 베트남의 地域霸權政策의 추구로 7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베트남의 캄푸치아침공, 中·越戰爭, 中·蘇의 東南亞에서의 勢力角逐 등으로 접철된 共產國간의 分烈과 葛藤, 및 ‘極化現象(polarization)’을 노정시켰다.

요컨대 60년대 및 70년대 전반 非共產 東南亞제국에 있어서 우려되었던 共產主義가 ‘미래의 파도’(the wave of the future)라는 비관주의思潮는 퇴조했다. 市場經濟體制를 중심으로 한 ‘現代化의 論理’가 印支共產圈의 共產主義 革命모델보다 더 우월하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ASEAN 제국에 팽배해 지고 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ASEAN 제국의 안보위협인식의 우선순위를 보면 印支共產圈을 비롯한 외부공산세력의 革命輸出보다는 經濟成長에 따르는 제반 사회·경제적 문제점, 즉 실업율의 증대, 富의 分配문제 등과 관련된 사회적 불만의 증대 및 이를 이용한 내부의 반정부 共產계릴라勢力 등 내부적인 安保威脅要因에 중점을 두고 있다.³⁾

ASEAN 제국내의 共產主義運動은 이들이 제 2 차대전 종전후 ‘新生國’으로 탄생되기 이전부터 西歐 帝國主義勢力으로 부터의 정치적 독립 쟁취를 위한 ‘脫植民主義’과정의 일환임은 물론, 독립후 社會主義모델에 의한 新生國건설이라는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한 좌파 民族主義勢力에 의해서 연원되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약 4~5년에 걸친 日本 帝國主義의 太平洋戰爭 擴戰에 따른 일시적인 東南亞지역의 지배·점령事態는 左·右 民族主義勢

2)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金國振, 「동남아 국제정치론」(정음사, 1985), pp. 74~78를 참조할 것.

3) Jusuf Wanandi, "Dimensions of Southeast Asian Securi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 No. 4, (4 March 1980), pp. 334~347.

力의 항일투쟁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共產系 武裝게릴라勢力은 종전후 수립된 東南亞 新生國 정치화 과정에 수렴되지 못하고 대부분이 농촌지역을 배경으로한 반정부 共產게릴라활동을 지속하게 되었다.

더우기 종전후 東·西冷戰의 東南亞지역확산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對立과 角逐은 ASEAN 제국내의 反政府 ‘武裝共產主義運動(Armed Communist Movements)’을 더욱 침예화 시켰다.

그러나 전술한 바, ASEAN 地域協力體制를 중심으로 한 ASEAN 제국의 경제발전 및 共產게릴라세력 퇴치를 위한 相互協力(2國間 또는 3國間 베이스에 의한)⁴⁾은 물론, ASEAN 各國의 초기 ‘군사적 방법’ 위주의 共產게릴라勢力 平定作戰에서 탈피, ‘社會經濟的 接近法’의 병용 등 평정능력향상으로 현 시점에서 필리핀을 제외하고 武裝共產主義運動이 ASEAN 제국에 대한 중대한 安保威脅勢力으로는 평가되지 않고 있다.

더우기 70년대 말 전술한 바 베트남의 캄푸치아침공에 따른 中共·베트남간의 葛藤 및 東南亞에서의 中·蘇의 勢力角逐 등 共產圈의 分裂은 ASEAN 제국내의 반정부 共產主義運動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이 親中共系인 ASEAN 제국내의 共產게릴라勢力은 中共이 베트남과 이를 지원하고있는 蘇聯을 견제할 목적으로 ‘政府 對 政府間 關係(government-to-government relations)’에 중점을 두고 ASEAN 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협력증대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黨對黨’次元에서의 中共으로부터의 支援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이 論文의 目的은 非共產 ASEAN 제국내의 共產主義實態를 다음과 같은 세 영역에 연구의 초점(research foci)을 두고 분석하는데에 있다.

첫째, ASEAN 제국내의 共產黨의 沿革

둘째, ASEAN 제국내의 共產主義運動의 主導勢力

세째, 이들 반정부 共產게릴라勢力의 能力(strength)

4) Sheldon W. Simon, *The ASEAN Estates and Regional Security*, (Stanford, Calif.: Hoover Institution Press, 1982), pp. 88~92.

네째, 共產계렬라勢力의 주요 전략 및 전술

다섯째, 외부共產黨과의 連繫關係(주로 中共과의)

끝으로, ASEAN 제국의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른 共產勢力의 ‘適應’ 또는 ‘土着化 過程(indigenization)’

이 論文에서는 ASEAN 6개국 중 실질적으로 共產黨(CPs)의 활동이 없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제외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泰國, 3국내의 반정부共產主義運動을 연구범위로 선정하고 있다.

Ⅱ. 東南亞의 政治的 環境: 諸葛藤의 소우스를 중심으로

ASEAN 제국내의 반정부 武裝共產主義運動의 實態연구라는 本 論文의 주제에 들어 가기 전에 이러한 반정부 共產運動이 지속되고 있는 東南亞, 특히 ASEAN 제국의 政治環境을 일별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왜냐하면 특히 本 研究의 性格이 ASEAN 제국의 반정부 共產運動에 대한 實態보고라는 주로 ‘어떤 事態에 대한 描寫(description)’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東南亞, 특히 ASEAN 지역에 있어서 ‘왜’ 武裝共產主義運動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說明(explanation)’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章에서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ASEAN 지역에서의 共產主義運動에 대한 직접적인 ‘原因(causal factor)’ 規明이 아니라 ASEAN의 政治環境이 武裝共產主義運動이 接木될 수 있는 여러가지 葛藤의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政治環境’이라는 視角에서 주로 說明段階이전의 ‘環境的 聯關性’을 다루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

첫째로, 泰國를 제외하고 ASEAN 제국은 오랜 기간동안 서로 다른 西歐 帝國主義의 통치를 받아 왔음은 물론, 太平洋戰爭종전까지 4~5년간의 日本 帝國主義의 지배·점령이라는 植民主義의 遺産(colonial legacies)과 관련, 많은 葛藤의 소지를 안고 있다. 우선 反帝國主義獨立鬭爭과정에

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民族主義勢力과 共產主義勢力간의 확연한 구분이 없이 혼재된 상태에서의 反植民鬭爭과정 중에 ASEAN 제국은 獨立을 맞이하였다. 때문에 ‘後期植民主義期間(post-colonial period)’ 중의 ‘新生國’ 수립과정에서 ASEAN 개별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인도네시아共産黨(PKI)을 제외하고 ASEAN 제국내의 共産黨(CPs)들은 농촌 또는 정글지대로 퇴각, 反政府 게릴라활동을 전개하였다.⁵⁾ 이들 ASEAN 제국의 共産黨들이 농촌 또는 정글지대로 퇴각, 게릴라활동을 벌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이데올로기적 요인은 中共 毛澤東의 농촌중심의 게릴라戰術을 통한 都市포위 전략이었다. 동 전략을 통한 毛의 中共에서의 共產主義의 성공과 이후 ASEAN 共産黨들에 대한 계속지원은 이들로 하여금 거의가 親中共系 共產主義運動을 벌이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植民主義遺産으로 인한 東南亞의 葛藤要因으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은 東南亞社會내의 ‘種族間 紛爭(ethnic conflicts)’과 ‘國境紛爭(border conflicts)’이다. 植民統治者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편의에 따라 東南亞社會의 華僑 및 印度人들을 대거 이주시켰음은 물론, 전통적으로 국가간 국경의 구분이 확연치 않은 東南亞 國家의 국경선을 편의대로 확정함으로써, 전후 國境紛爭이 東南亞國家간 주요한 葛藤의 要因이 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분별한 국경선의 확정으로 文化 및 宗教가 다른 異民族이 다른 國家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武裝共產主義運動과 함께 ASEAN 국가들의 安保威脅요인이 되고 있는 ‘武裝分離主義運動(armed separatism)’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⁶⁾ 예컨대 필리핀의 경우 민다나오지역의 回教徒들을 중심으로 한 모로 分離主義運動은 필리핀정부군의 對新人民軍(NPA)작전에 필요한 병력과 물자를 소모시킴으로써 차질을 줌은 물론, 정치적 불안을 조성하기 때문에 NPA를 주축으로 한 필리핀 共

5) Lim Joo-Jock & Vani S. (eds.), *Armed Communist Movements in Southeast Asia* (England: Gower Publishing Company Ltd., 1984), p. xii.

6) Lim Joo-Jock & Vani S. (eds.), *Armed Separatism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SEAS, 1984)

產黨(CPP)활동의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東南亞 각국에 산재해 있는 華僑를 통한 中共의 영향력 행사 또는 東南亞 各國의 華僑에 대한 차별정책에 대한 中共의 간섭은 中共과 東南亞제국간에 중요한 葛藤의 요인이 되어왔다.⁷⁾ 특히 ASEAN 제국내의 共產主義運動과 관련, 특기할 사항은 아직도 國民統合(national integration) 및 社會同和(social assimilation)과정의 미완성단계에 있는 ASEAN 국가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華僑들이 共產主義運動의 주도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째, 전술한 바, ASEAN 제국은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유 및 ASEAN 地域協力體制를 통하여 상당한 經濟成長을 이룩했지만, 높은 失業率 및 富의 分配문제 등 아직도 많은 社會經濟的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都市와 農村經濟의 현격한 「갭」은 물론, ‘多數種族社會’인 ASEAN 제국에 있어서 ‘經濟發展’이 단순한 물량적 증대라는 차원의 GNP 및 1人當 GNP의 증대를 의미하는 ‘經濟成長’일 수 만은 없기 때문에 더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經濟成長이 多數의 種族에게 균등한 개발의 혜택을 부여하는 ‘均等한 成長(growth-with-equity)’이 아닐 경우, 經濟成長문제가 바로 安保문제에 직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른 사회에 비하여 훨씬 큰 것이다. 이 점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ASEAN 제국은 社會經濟문제의 安保이슈로의 직접적인 ‘과급(spill-over)’ 위험성이 다른 開發途上지역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네째, 다른 제 3세계지역과 마찬가지로 ASEAN 제국도 ‘現代化의 論理’와 ‘民主主義論理’간의 不均衡상태에서 構造的인 政治的 不安要因을 안고 있다. 교육 및 經濟發展에 따른 國民意識水準의 향상과 政治參與욕구의 상승에 비하여 장기적인 軍部の 집권 또는 權威主義의 통치양식은 지식층, 학생 등 특히 젊은 世代의 政府에 대한 불만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어왔

7) Leo Suryadinata, “‘Overseas Chinese’ in Southeast Asia and Chinois Foreign Policy,” ISEAS, *Research Notes and Discussion Paper*, No. 11.

다. 이들의 反政府 運動에 있어서 理念體系의 주축이 1973년 10월 泰國의 학생운동에서 볼 수 있는 바, 從屬理論, 新植民主義論, 解放神學 등 左派이데올로기임은 물론, 궁극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連繫되기 때문에 都市의 근로자 및 노동자들의 政治意識化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都市의 지식층 및 근로자층의 左派이데올로기화의 과제는 ASEAN 제국내의 共產運動에 있어서 종래 毛澤東의 農村中心의 게릴라戰略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필리핀(CPP)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共產主義運動이 都市의 大衆浸透에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경우와 달리, 都市 大衆浸透에 실패할 경우, 共產主義運動의 성공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인식이 말레이시아共產黨(CPM) 및 泰國共產黨(CPT)내에도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毛澤東의 '農村게릴라' 중심의 戰略을 각국의 정치상황발전에 적합하게 適應 또는 土着化시키는 과제가 ASEAN 共產黨들의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요컨대, ASEAN 제국의 政治環境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共產主義運動이 接木될 수 있는 葛藤의 소지가 많다고 평가된다. 특히 ASEAN 제국의 대외적 安保環境이 共產圈의 내부분열과 葛藤으로 어느정도 安定을 유지할 수 있다는 視角에서 共產主義運動 등 내부적 安保威脅要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⁸⁾

理論的인 視角에서도 현재 ASEAN 제국의 발전상태를 斷面的으로 관측할 때, 從屬理論, 新植民主義論, 帝國主義의 浸透, 相對的 剝奪感(relative deprivation) 등을 중심으로 한 社會葛藤理論 등의 적용시도가 타당하게 보일 수 있다. ASEAN 제국내의 裝武 共產主義運動의 지속은 이러한 諸社會葛藤理論으로 어느정도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ASEAN 제국내의 反政府 武裝共產主義運動을 지속시키

8) 이러한 視角에서 80년대 泰國政治體制를 論議한 論文으로 Kim Kook-Chin, "An Overview of Thai Politics in the 1980's: Challenges and Prospects,"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XXIX, No. 1에서 특히 pp. 78~80를 참조할 것.

는 이데올로기는 毛思想, 스탈린主義 등, 現實의 社會葛藤에 대한 가상적 허구이지만, 새로운 형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마르크스主義에서 연원 되는 것이다.⁹⁾

Ⅲ. 아세안諸國의 共產主義運動의 實態

이 章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ASEAN 6개국중 共產黨活動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거나 비교적 활발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泰國 등 3개국의 共產主義運動實態를 (1) 共產黨運動의 沿革, (2) 이의 主導勢力, (3) 能力 (strength), (4) 이들의 主要 戰略 및 戰術, (5) 外部 共產國家 및 黨과의 連繫관계, (6) 政治狀況의 變化 및 發展에 따른 適應 및 土着化過程 등 제基準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말레이시아 共產主義運動

(1) 말레이시아共產黨(CPM)의 沿革

ASEAN 제국내 共產黨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CPM은 1930년에 창설되었다. 몇년 앞서 창설된 「난양共產黨」(the Nanyang Communist Party)를 이어 받은 CPM은 말레이시아에서도 가장 오래된 政治組織임과 동시에 한 때는 말레이반도에서 가장 광범위한 조직과 영향력을 행사한 政治勢力이었다. CPM은 두 개의 黨派그룹, 즉 「마르크스-레닌主義 CPM」(the CPM Marxist-Leninist)과 「革命派 CPM」(the CPM Revolutionary Faction)을 거느리고 있다. CPM 및 두 개의 黨派그룹은 모두 泰國南部에 게릴라 基地를 두고 있다. CPM과 함께 武裝共產主義運動을 벌이고 있는 共產黨인 「北카리만탄共產黨」(the North Karlimantan Communist Party ; NKCP)은 창당초기에는 보르네오全域에 걸쳐 共產활동을 전개했었으나 현재는 사라왁(Sarawak)지역에 국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9) Lim & Vani, *Armed Communist Movements*, op. cit., pp. xv~xviii.

상기 두개의 共產黨 CPM 과 NKCP 는 NKCP 초기 형성단계에서는 상호連繫가 있었으나 현재는 별개의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¹⁰⁾ 그러나 이 두개의 共產黨은 말레이政府에 대해서 反政府계렬라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 뿐만아니라 활동영역도 구분하고 있다는 면에서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CPM 및 NKCP 두 개의 共產主義運動이 과거 植民말레이지아政府 및 獨立後 들어선 諸 말레이政府의 전복을 기도해 왔고 말레이지아聯邦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分離 獨立主體로의 싱가포르의 지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¹¹⁾

그리고 CPM에 관하여 특기할 점은 CPM은 그 革命강령에서는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를 포괄, 革命政府의 수립을 내걸고 있으며, 따라서 싱가포르의 「人民行動黨」(the People's Action Party)政府 및 쿠알라룸푸르政府의 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CPM은 협상을 통한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의 통일을 주장함으로써 싱가포르의 말레이지아에서의 分離를實質的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¹²⁾ 싱가포르의 CPM 조직은 60년대에 완전히 소탕되었다.

(2) 主導勢力 및 能力

1980년 CPM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를 정글지대의 은신처에서 거행한 CPM은 한 세대 이상의 오랜기간동안 말레이지아 정치의 주류에서 고립·탈락되어 왔었다.

CPM의 군대조직인 「말레이지아解放軍」(the Malaysian National Liberation Army; MNLA)은 한때 14,000~16,000명에 달했으나, 현재 그 殘黨이 말레이지아—泰國 國境地대의 泰國 領土내에 게릴라기지 또는 ‘聖域’(sanctuary)에 주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지역도 과거 10년

10) Zakaria H. Ahmad & Zakaria Hamid, "Violence at the periphery: A brief survey of armed communism in Malaysia," *Ibid*, p. 52.

11) *Ibid*.

12) Donald E. Weatherbee, "The Indigenization of ASEAN Communist Parties," in Charles E. Morrison (ed.), *Threats to Security in East Asia-Pacific* (Massachusetts: D.C. Heath and Company, 1983), p. 165.

간 말레이시아—泰國간의 叛軍退治協約에 따른 退治作戰으로 聖域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CPM 게릴라勢力은 약화추세에 있다. 1970년 이래 충성심 및 전술 등 이슈에 대한 논쟁으로 정치적으로 내부분열을 보여 온 MNLA는 남녀 합해서 2,000~3,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근래에 와서 더욱 약세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48년 CPM을 정글지대로 옮긴 主導人物인 친펑(Chin Peng)이 이끌었던 CPM의 主軸勢力은 1,500~2,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남부泰國의 베통(Betong) 및 와엥(Waeng)지역에 주둔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의 코로흐(Kroh)지역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말레이시아軍 제10여단에 의해서 봉쇄되고 있다. 상기 CPM 主軸勢力의 北部에 약 600명으로 추정되는 「마르크스-레닌主義 CPM黨」게릴라들이 주둔해 있고, 「CPM 革命黨派」는 약 200명에 달하는 게릴라 勢力으로 泰國의 사다오(Sadao)지역에 주둔해 있다. 「CPM 革命黨派」게릴라들은 1977~78년에 행해진 泰國—말레이시아 合同掃蕩作戰으로 대거 피해를 입었다. 이들 CPM系 게릴라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國境내의 파당 베사(Padang Besar)지역에 말레이시아 제12보병여단이 배치하고 있다.

이들 3개의 CPM 게릴라勢力은 공히 親中共系라는 것이 정보분석가들의 컨센서스로 알려져 있다.¹³⁾

말레이政府軍 단독 또는 泰國軍과의 合同作戰에 의한 빈번한 추격 및 소탕전으로 기아등 생존문제에 급급한 CPM 게릴라勢力들이 말레이시아 영토내에서의 중대한 군사적 도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全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政府는 현재 페락(Perak), 케란탄(Kelantan), 및 파항(Pahang) 등 원거리지역에 약 230여명으로 추산되는 CPM 제 8 및 제 6 공격부대(Assault Units)의 殘黨들이 산재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CPM 등 말레이시아의 反政府 共產게릴라勢力이 약화된 데에는 물론 말레이시아政府軍의 효과적인 叛軍退治作戰이 크게 작용하고 있

13) *Ibid.*

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共產主義運動의 構造的 결함, 즉 CPM 창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CPM의 主導勢力은 물론, 黨구성원에 이르기까지 華僑들로 구성, 촉진된 ‘華僑중심의 革命運動’이라는 점에서, CPM을 主軸으로 한 共產主義運動 자체가 말레이시아에서 收容되기 어려운 構造的 문제점이 CPM 勢力약화의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더우기 CPM 게릴라勢力이 거의가 말레이系 농민층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에서 毛澤東의 게릴라戰術에 따라 ‘게릴라(물고기)勢力이 農民(물)의 협력으로 그 勢力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업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CPM의 경우 말레이系 農民층의 비협조적 태도는 치명적이었다. CPM은 ‘階級’중심의 政治勢力으로 자처해 왔지만, 인적 구성요소, 선전, 홍보 등에 비주어 창설초기부터 ‘華僑系 政黨’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視角에서 스텐손(Michael Stenson)은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말레이아에 있어서 농민들을 동원, 都市들을 포위, 고립화시키는 戰略을 적용하여 성공할 가능성은 전무하다.”¹⁴⁾

더우기 말레이시아의 경우 種族間의 ‘수직적, 사회적 分裂’(vertical social cleavage)현상은 창설초기부터 CPM으로 하여금 그 활동영역을 華僑사회에 국한시킬 수 밖에 없게 하였다. CPM은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일부 말레이 및 印度系 인사들을 黨高位職에 채용하기도 했으나, 국민적인 또는 土着化된 共產主義運動이라기 보다는 異邦人이 주도하는 運動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점에서 1956년부터 CPM 議長겸 黨海外代表團수뇌로써 오랫동안 北京에 체류했던 무사(Musa Ahmad)의 1980년 귀순사태는 CPM의 黨의 ‘多數民族이미지’(multi-ethnic image)부각을 위한 노력에 치명타를 주었다. 무사는 1981년 1월 TV 프로그램에 출연, CPM이 말레이시아國民을 위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中國 共產黨과 中共의 영향력확대를 위한 대

14) Michael Stenson, “The Ethnic and Urban Bases of Communist Revolt in Malaya,” in John Wilson Lewis (ed.), *Peasant Rebellion and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Stanford, Calif.: Stanford Univ. Press, 1974), p. 126.

행기관역할을 해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CPM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무사는 CPM의 최고지도자인 친궈이 中共의 목적을 위해서 처음부터 무용한 鬭爭을 지연시켜 왔다고 비난했다.¹⁵⁾

CPM은 이러한 무사의 '배반'에 대해 말레이系 인물로 CPM의 중앙위원회 회원인 압둘라(Abdullah C.D.) 및 라쉬드(Rashid Madin) 등을 동원, 통렬한 반박을 기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과정에서 CPM은 1967~1968년에 무사를 비롯한 高位 黨幹部사이에 있었던 黨內討論에서 말레이系 농민들을 게릴라투쟁에 적극적인 동원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하여 친궈의 指導路線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고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CPM指導勢力간의 內紛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이러한 CPM指導勢力간 內紛의 결과로 전술한 바 있는 CPM의 두 黨派그룹인 「마르크스-레닌主義 CPM」과 「CPM 革命黨派」가 분리되어 나간 것이다.¹⁶⁾

요컨대, 말레이시아의 CPM에 의한 共產主義運動은 말레이시아政府의 효과적인 叛軍退治作戰, 華僑중심의 反政府 小數民族運動이라는 構造的 이미지, 및 CPM指導勢力의 內紛의 지속 등의 이유로 '邊方の 폭력'(violence at the periphery)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CPM의 主要 戰略 및 戰術

CPM은 말레이시아共產運動의 主戰略 및 戰術을 毛澤東 武裝革命論에 의존하고 있다. CPM은 1948~1960년까지의 非常事態期間중에 경험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毛의 戰略 및 戰術에 의한 접근은 옳았으나, 말레이시아의 현실상황 인식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毛의 戰略 및 戰術을 고수하였다. 毛의 武裝革命戰略의 요체는 '農村을 거점으로하여 都市를 포위'하는 農村중심의 전략을 통하여 革命을 달성하는 것으로 中共의 革命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15) Weatherbee, *op. cit.*, pp. 167~168.

16) Zakaria H. Ahmad & Zakaria Hamid, *op. cit.*, p. 55.

이와같은 毛의 武裝革命을 겨냥한 기본전략수행을 위하여 CPM은 수시로 戰術차원의 作戰지시를 내려 왔다. 예컨대 1968년 CPM은 ‘공격부대’(assault units) 및 ‘무장 노동대’(armed work forces)의 설치를 하달했다. 1973년에는 특수부대 장교들을 암살하는등 말레이시아保安軍(the Security Forces; SF)과의 직접적인 대치작전을 하달함과 아울러 공격부대와 SF 간의 戰術的 전투를 도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같은 CPM의 戰術은 SF에 대한 말레이시아國民의 신뢰감을 실추 시킴으로써 CPM 활동의 행동반경을 넓히려는 데에 主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PM 文書에 의하면 이상과 같은 戰術과 병행하여 公共社會·政治團體 등의 浸透과 같은 地下活動을 전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反政府그룹과 聯合戰線을 펴고 아울러 一般 大衆의 對政府불만을 선동하기 위하여, 특히 政府에 불만을 갖고 있는 말레이 및 印度系人들 및 團體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華僑중심이 라는 CPM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⁷⁾

越南戰에서 美軍이 철수하고 印支의 共產圈이 출현한 1974~1977년까지 CPM은 공개적으로 都市지역으로의 무장활동을 전개했었으나, 1977년이후 정글지대로 퇴각했다. 1977년부터 베트남과 캄푸치아의 國境紛爭 및 中共·베트남간의 葛藤의 악화로 인하여 외부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SF의 지속적인 CPM 退治作戰으로 CPM은 정글지대로 퇴각할 수 밖에 없었다.

정글지대로 퇴각한 CPM은 ‘복병 및 지뢰’(ambush and land mines)의 매복 및 설치 등 정글戰術을 개선하는 등 노력했으나, 말레이시아 SF의 효과적인 게릴라退治作戰때문에 항상 ‘도주하는 상태’(on the run)에 처하게 됨으로써 農村지역의 거점을 통하여 都市를 포위한다는 毛의 革命戰略의 구현은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7) *Ibid.*, p. 57.

CPM은 말레이시아—泰國 國境지대에 「말레이시아 革命的 소리방송」(Voice of the Malaysian Revolution; VOMR)이라는 비밀라오더를 통하여 CPM의 선전 및 말레이농민들의 회유·유도 등 ‘心理戰’(psychological warfare)를 벌여 왔으나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구조적인 말레이시아의 人口分布狀況에 비추어 CPM이 채택하고 있는 毛의 農村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 지구전략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말레이시아의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는 말레이系 農民이 거주하기 때문에 CPM은 非말레이 지역에서 만 활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4) CPM의 外部 共產勢力과의 連繫關係 및 土着化 이슈

전술한 바와 같이 CPM은 親中共系 共產黨이다. 中共은 70년대 말 베트남의 캄푸치아침공사태 및 蘇聯의 베트남의 印支霸權政策 등의 제속 지원과 자국의 民主캄푸치아 지원정책으로 인한 戰略的 상충과 관련, 말레이시아 및 泰國 등 ASEAN 政府의 協力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같은 中共의 東南亞에서의 戰略的 利害關係의 변화에 따른 캄푸치아事態에 대한 ASEAN 제국과의 利害關係의 收斂化(convergence of interests)는 ASEAN 제국내의 CPs에 대한 中共의 支援政策에 制動을 걸었다. 中共은 CPM을 포함 ASEAN 제국내 CPs에 대한 실질적인 支援을 포기하고 있으며, 中共의 ASEAN 제국내 CPs들과의 關係는 단순한 정치적·도덕적 관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中共의 ASEAN 제국 CPs에 대한 직접적인 물자지원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泰國 최고司領官이었던 세이우드장군은 1981년 말경 中共은 「泰國共產黨」(CPT) 또는 CPM에 대한 軍事支援을 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¹⁸⁾ 또한 中共은 1979년 「泰國人民의 소리방송」(the

18) 中共의 趙紫陽首相은 1981년 ASEAN 巡訪을 통해서 ASEAN CPs에 대한 實質的인 支援을 안할 것이고, ASEAN 國內문제에 간섭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으나, ‘黨對黨’次元에서의 ASEAN CPs와의 關係를 단절하겠다는 말은 피했음. 中共의 ASEAN CPs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는 Weatherbee, *op. cit.*, pp. 162~163를 참조바람.

Voice of the People of Thailand; VOPT)과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VOMR 을 1981 년 각각 중단했다. 新華社通信 및 기타 中共의 메스메디아도 CPM 등 ASEAN 제국내 CPs 들의 反政府 비난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北京에 망명그룹들도 뉴스의 초점에서 제외되어 있다.

CPM의 경우에도 주요 외부지원세력인 中共의 지원단절이 CPM의 土着化 문제를 첨예화시키고 있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中共의 지원이 단절된 상황에서 CPM은 아직도 그 인적구성면에서 華僑 등 非말레이人들이 主軸勢力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CPM의 土着化 이슈는 CPM의 존속문제여부라도 직결되는 것이다. CPM은 毛澤東 革命戰略에 입각, 말레이시아의 大衆을 유도하는데 실패했다. 예컨대, 泰國南方의 國境내에 있는 CPM 산하 제10연대 구성원의 60%가 모슬렘系 泰國人이거나 華僑들로 되어 있다. MNLA 게릴라세력중 5%만이 말레이人들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문제의 초점은 CPM의 제반 프로그램이 말레이시아와 關聯性이 있느냐의 여부보다는, CPM이 말레이人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레이시아 ‘人種主義’(communalism)의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黨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느냐의 여부에 놓여 있다.

CPM은 역사적으로 말레이시아의 人種主義를 거부해 왔으나, 근대에 와서 점차 말레이시아에서의 共產主義運動의 ‘人種的 土着化’(an ethnic indigenization), 즉 말레이시아화를 향한 노력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系가 主導勢力인 CPM 제10연대의 이니셔티브로 단순히 억압받는 大衆 유치노력의 일환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말레이人들의 동원을 겨냥한 전위조직(front structures)의 창설을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CPM의 말레이시아人들로부터의 지지기반을 확충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CPM의 ‘말레이시아화’에 앞장서고 있는 指導者인 라쉬드 메에이딘은 CPM 中央委員會 委員으로 「이슬람 兄弟黨」(PAPERI)를 배후에서 후원하고 있다. PAPERI의 선전책자 및 비밀방송 등에서는 말레이 이슬람敎徒

들의 敵인 말레이시아정부 및 蘇聯—베트남霸權主義者들에 대한 鬭爭의 正當化를 위하여 코란을 인용하고 있다.¹⁹⁾

PAPERI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敎徒들의 회유·유도와 더불어 주목되고 있는 CPM의 전위조직으로 「말레이民族革命黨」(the Malay Nationalist Revolution Party of Malay; MNRPM) 꼽을 수 있다. MNRPM은 1981년 5월 24일 창설되었으며, “完全獨立 및 순수한 解放을 위한 帝國主義 및 反動分者들”에 대한 투쟁을 목적으로 말레이民族은 華僑 및 印度系 말레이人들과 聯合戰線을 펼 것을 역설하고 있다.²⁰⁾

이와 같은 PAPERI 및 MNPRM 등 CPM의 전위조직들의 창설은 CPM의 黨의 定向의 變化를 의미함은 물론 華僑를 중심으로 한 친평指導力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하티르 쿠알라룸푸르政府는 이와같은 CPM의 말레이化 등 土着化 노력에 대해서 말레이시아國民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강경하면서 동시에 收容의인 효과적인 CPM退治作戰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CPM의 전위조직의 창설 등을 통한 土着化 努力이 말레이시아政府의 효과적인 CPM對策 및 뿌리가 깊은 말레이시아 ‘人種社會’의 각 種族간의 깊은 「罅」을 감안할 경우, 이러한 것들을 극복, 階級意識을 고취·형성할 가능성은 극히 稀薄하다고 판단된다.

2. 필리핀 共產主義運動

(1) 필리핀共產黨(CPP)의 沿革

20여년에 걸친 마르코스의 장기독재정권하의 構造的 跛行성의 길을 걸어 왔던 필리핀의 정치·경제·사회 등 제부분의 非理와 葛藤의 심화는 CPP勢力확장의 온상이 되어 왔다.

ASEAN CPs 중에서 CPP가 현재 가장 큰 體制挑戰能力을 갖고 있는

19) *Ibid.*, p. 169.

20) *Ibid.*, pp. 167~170.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PP는 1930에 창설된 스탈린主義의 구필리핀共產黨(the Partido Komunistang Philippines; PKP)에서 분리, 1968년에 창설되었다. PKP는 40년대 및 50년대에 걸쳐 후크反亂(the Huk Rebellion)으로 알려진 武裝共產主義運動을 폈었으나, 1957년 6월 PKP의 서기장 라바(Jesus Lava)의 '民間에로의 復歸' 및 '民族主義 및 改革團體들을 통한 議會鬭爭'을 黨員들에게 중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武裝共產革命戰略을 포기했다.

스탈린主義에 입각한 엄격한 黨의 統制와 이에 따른 硬直性을 띤 黨官僚體制에 대한 젊은 世代층에 속하는 黨員들의 반발 및 上記 PKP 指導部の 法的 테두리내에서의 議會鬭爭 등 黨의 指導路線에 반발, PKP의 青年局을 맡고 있던 게레로(Amado Guerro)를 중심으로 하여 CPP가 분리되었다. 당시 中共의 文化革命, 美國의 越南戰의 擴戰, 인도네시아의 스카르노體制의 붕괴 등 일련의 국제사태의 발생이 「필리핀大學校」(UP)를 중심으로 PKP와는 관계없이 自生的인 인테리층의 마르크시스트를 발생시켰는바, 이들이 PKP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PKP 指導勢力에 대한 불만증대와 CPP 분리의 분위기를 조성케 했다. PKP는 게레로를 축출하였고, 게레로를 중심으로 한 청년 인테리 黨員들은 親蘇 PKP에서 분리, 親中共系 CPP를 창설케 된 것이다.²¹⁾

(2) CPP의 主導勢力 및 能力

게레로(一名 Jose Sison)지도하의 CPP의 PKP로부터의 분리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一名 Commander Dante로 불리우는 부스카이노(Bernabe Buscayno)가 가세, '新人民軍'(New People's Army; NPA)이 창설된 1968년 3월부터였다. 부스카이노는 후크반정부 게릴라勢力의 指導者의 한 사람으로 후크의 세력이 쇠퇴해 짐에 따라 反革命的인 武裝폭도로 타락함을 목격하고, 革命課業수행을 위해서는 마르크스主義政黨에 의한 指導와 大衆과 連繫된 鬭爭을 벌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차에 게레로가 이끄는 CPP

21) Zakaria H. Ahmad & Zakaria Hamid, *op. cit.*, pp.72~78.

와 결탁하게 되었다. 즉 CPP는 理念政黨으로 共產主義黨을 찾고 있었던 부스카이노와 武裝게릴라에 의한 鬭爭力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게레로의 결합으로, 戰鬭게릴라勢力으로 NPA를 전투세력으로 하여 필리핀에서의 武裝共產主義運動의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²²⁾

그러나 주의를 요하는 점은 NPA가 PKP의 전투조직인 후크와는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PKP가 후크를 단순히 '전투세력'(a fighting force)으로 취급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CPP는 NPA의 정치적인 '선전장치'(a propaganda apparatus)로서의 측면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CPP는 NPA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 NPA 구성원은 CPP의 정구당원과 마찬가지로 정치교육을 받고 있다. 후크와 NPA는 그 구성원의 사회적 계층 구성면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후크게릴라들은 거의 전부가 농민층으로 구성된데 비하여 NPA는 都市의 大學生 등 인텔리층을 많이 포용하고 있다. 이들 인텔리층들은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 약초재배 및 침술, 관개개량 등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전수함으로써 농민들과 쉽게 화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²³⁾

1976년과 77년 부스카이노와 게레로가 각각 체포됨으로써 CPP의 主導權은 毛思想을 숭배하는 一般黨員들에게 넘겨졌다. 새로운 CPP의 主導勢力은 毛思想이 中共자체에서 비판을 받음은 물론, 美·中共和解가 진전됨에 따라 毛이데올로기의 고수에서 탈피했다. 즉 이들은 毛의 革命論과 동시에, 지압(Vo Nguyen Giap), 호지명 등 기타 아프리카 아시아革命指導者들의 이데올로기 및 戰術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²⁴⁾

NPA 勢力에 대한 勢力評價는 報告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1983년 8월, 아키노 前필리핀上院議員이 美國에서 歸國하던 중 마닐라空港에서의 문의暗殺을 당한 事態로 말미암아 필리핀政局이 不安해진 것을 이용, 급격하게 팽창세를 보인 NPA 勢力에 대하여 필리핀政府는 10,000~12,000명으로 추산

22) *Ibid.*, p. 80.

23) Huk와 NPA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토의는 *ibid.*, pp. 80~81을 참조바람.

24) Weatherbee, *op. cit.*, p. 178.

하고 있으며, 美國政府의 추산에 의하면 14,000~16,000 명에 달한다.²⁵⁾

과거 40년대 및 50년대에 발호했던 후크共產계릴라들의 활동이 주로 中央루존지역에 국한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70년대에 그 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NPA는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중부의 사아마르 및 네그로스, 북부의 루존지역에 이르기까지 거의 필리핀 전국에 세력을 확장시켰다고 보고되고 있다.²⁶⁾

이러한 NPA 세력의 급성장추세는 마르크스 前필리핀의 政權의 長期執權, 族閥經濟體制(crony capitalism)의 운영에 따른 經濟의 파탄, 실업사태, 필리핀政府軍의 과도한 NPA 退治作戰에 따른 作戰地域內 農民들의 不滿증대 및 이에 따른 이들 農民들의 NPA에의 가담등 극도의 위기로 치달았던 필리핀 정치정세에 기인되었다. 마르크스추출 후 들어선 코라손 아키노 新필리핀政府는 NPA의 회유를 겨냥, 6개월간의 休戰을 제의, 이들과의 協商을 벌이라고 발표했으나, NPA 勢力이 줄어 들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²⁷⁾

(3) CPP의 主要 戰略 및 戰術

親中共系 CPP의 指導勢力은 PKP로부터의 분리 초기부터 毛의 革命戰略이 필리핀과 같은 島嶼國家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인식했다. 필리핀의 경우 中共共產革命의 기지이었던 '연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이 택한 군사전략은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獨自的 작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NPA 계릴라세력들의 정치적 영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機動戰鬪'(mobile warfare)이었다. 이러한 視角에서 시둑(Sharon Siddique)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25) 1983년 8월 아키노 前필리핀上院議員의 마닐라空港에서 暗殺事態 이후 NPA의 세력의 급성장에 대해서는 다음 論文을 참조바람. Harold Crouch, "The Continuing Crisis in the Philippines," Kuala Lumpur: ISISMA Seminar Paper, 1985.

26) *Ibid.*, pp. 8~9.

27) Francisco S. Tacad, "Trifling with Revolution," *Asian Wall Street Journal*, Monday, May, 12, 1986; see also Tom Marks, "Don't Discount the Philippine Communists," *ibid.*, Monday, April 28, 1986.

“一般的으로 어느國家가 수백개의 섬을 갖고 있다는 것은 不利한 條件이나, 반면 필리핀共產黨이 群島에 26개의 주요 게릴라지역을 戰略的으로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有利한 장점이기도 하다. 또 다른 有利點은 지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를 투입, 전개하고 있는 마르코스反動政府의 지구적인 反革命攻勢로부터의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²⁸⁾

CPP가 다른 ASEAN 제국의 CPs들과 전략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武裝鬭爭과 정치행위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주요 CPP黨員들은 과거 도시출신들로, 기타 反政府 및 反體制人士들과의 聯合戰線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NPA는 農村지역에서 게릴라까지 구축을 지속하는 한편, CPP는 「民族的民主戰線」(the National Democratic Front; NDF)의 기치하에 聯合戰線을 펴으로써 反마르코스세력을 응집시켜 都市 中產階級을 혼란시키는 戰略을 채택했다. NDF는 CPP 산하 좌파 전위조직으로, CPP의 영향을 받는 政治勢力을 집결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아울러 CPP는 자신이 民族主義勢力과 民主主義勢力의 ‘광범위한 同盟體’라고 자처하고, 노동운동지도자, 學生, 解放神學의 영향을 받은 카톨릭신부 및 평신도들이 가입된 「野黨聯合黨」(the United Democratic Opposition; UNIDO)과의 제휴를 기도했다. 이러한 CPP의 주 전략적 의도는 필리핀의 政治的 極化현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그 勢力을 확장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CPP의 NDF 등 政治的 전위조직을 통한 정치적 침투는 마르코스政權 말기 ‘危機狀況’을 利用, 學界, 敎界, 民族主義勢力 유도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PP는 또한 민다나지지역을 중심으로 한 回教徒 武裝分離主義運動, 즉 「모로民族解放戰線」(the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MNLF)과의 제휴를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양세력간에 어떠한 合同 또는 조정된 행동을 하고 있는 조짐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 여하간 CPP 및 NPA는 MNLF의 70년대의 武裝봉기기간중 필리핀政府軍이 이의 퇴치를 위

28) “The Philippines New People’s Army is Progressing and Growing,” quoted in Weatherbee, *op. cit.*, p. 178.

한 전투력을 소모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²⁹⁾

요컨대, CPP 및 NPA의 기본전략은 毛의 軍事戰略을 근본적으로 수정, 島嶼國家인 필리핀상황에 맞게 開發하였다. 즉 주요 지역에 게릴라 전위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都市 및 주요 지역에서의 大衆運動을 전개함으로써 80년대 말에는 주요지역에 동시에 大衆봉기를 획책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戰略수행을 위하여 CPP는 中央統制方法보다는 分散主義와 高度의 戰術的 機動性을 바탕으로 하여 필리핀 政府軍의 게릴라退治作戰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4) CPP의 外部共產勢力과의 連繫關係 및 土着化

앞의 分析에서 이 節의 要諦는 이미 거의 언급되었다. CPP는 PKP가 스탈린主義로 親蘇태도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毛의 思想을 기본 이데올로기로 하고 親中共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CPP의 이러한 毛思想에의 추종 및 親中共태도에도 불구하고 거의 독자적으로 필리핀 고유의 共產主義運動을 전개해 왔다. 따라서 中共내의 ‘四人幫’의 몰락 및 中共의 필리핀 政府와 關係正常化 등 友好關係의 발전사태가 CPP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이와같은 CPP와 中共의 어느정도 격리된 關係는 地理的인 이유와 관련, 中共이 마르크스 政府와 正常化이전에도, 물질적으로 CPP를 지원할 수 없었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中共은 단지 CPP에 대한 정신적인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CPP가 MCP 또는 CPT와 달리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주요 이유는 마르크스의 장기 독재政權에 연유한 지속적인 정치불안, 경제·사회적 위기 생활은 물론, 필리핀의 상황과 조건에 적합한 ‘필리핀화’된 전략 및 전술의 개발과 아울러 지도세력의 배양이었다.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土着化’過程을 거침으로서 그 勢力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CPP의 NDF 등 정치적 전위조직을 통한 카톨릭勢力에의 침투 및

29) Weatherbee, *op. cit.*, p. 179.

필리핀노동인구의 약 3분의 1을 접하는 실업자들에게 침투하는 등 都市의 大衆에의 성공적인 접근은 다른 ASEAN CPs에서 찾아볼 수 없는 CPP의 독특한 土着化의 성공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CPP의 土着化와 관련, 간파할 수 없는 사항은 1975년 CPP의 中央委員會에서 당시 베트남共産黨과 마찬가지로 中·蘇와 동시에 友好政策을 표방하고, 일방적인 毛思想태도를 지양, 전적으로 自立的인 방침을 정했다는 점이다.³⁰⁾

이 점에서 현재 自立에 의존하고 있는 필리핀共産主義運動의 事例는 東南亞 共産主義運動이 일반적으로 외부세력의 지원에 의존·존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외부세력의 지원이 중단 될 경우 소멸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명제의 確證性을 크게 제한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泰國 共産主義運動

(1) 泰國共産黨(CPT)의 沿革

CPT는 中國共産黨(CCP)과 마찬가지로 蘇聯의 볼셰비키黨의 모델을 따라 1942년 12월 1일 창설되었다. CPT는 레닌과 毛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그룹도 黨의 指導없이 革命을 창출 또는 완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CPT는 1961년 9월 제 3차 黨大會에서 “農村을 바탕으로 하여 都市를 포위하며, 권력장악을 위해서 武裝鬭爭을 전개”한다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毛의 革命戰略을 따를 것을 명백히 하였다.³¹⁾ 이후 CPT의 革命理論은 毛의 思想을 더욱 강조, 농촌지역에서의 革命鬭爭의 據點을 구축, 都市를 포위하는 戰略수행을 위하여 農民들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CPT의 ‘人民戰爭’戰略은 1965년 8월 7일 泰國북부지역의 푸판(Phu-

30) Lim Joo-Jock & Vani S. “Armed Communist Movements”, *op. cit.*, p. 104.

31) Andred Turton, Jonathon Fast, and Malcom Caldwell, (eds.), *Thailand, Roots of Conflict* (London: Spokesman, 1978), p. 177.

pan)고원지대의 나카에(Na Kae)에서 일어난 武裝봉기 사태를 기점으로 하여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후 CPT는 泰國 東北部로부터 北部 및 南部에 걸쳐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CPT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던 1977~78년기간에 CP는 泰國 72개省에서 52개省까지 그 활동을 확산시켰다고 한다.³²⁾

(2) CPT의 主導勢力 및 能力

CPT의 세력확장 추세는 1978년 베트남의 캄푸치아침공사태를 계기로 급격하게 꺾이고 말았다. 泰國은 베트남과의 전통적인 ‘緩衝地帶’(a buffer zone)의 역할을 해오던 캄푸치아가 베트남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베트남으로부터 직접적인 安保威脅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中共은 東南亞의 유일한 友邦이었던 캄푸치아를 베트남이 侵攻하고, 이를 蘇聯이 지원함으로써 東南亞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확장은 물론, 蘇聯·베트남간 실질적인 군사동맹에 따른 자국의 남방경제선에 대한 安保威脅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베트남전제의 측면에서 泰國과 利害關係가 일치되었다. 中共의 泰國을 통한 캄푸치아 反베트남 게릴라세력에 대한 군사지원은 泰國과 베트남·라오스간의 새로운 葛藤의 소지가 되었다.

이와같은 戰略的 利害關係의 변화에 따라 CPT는 베트남 및 라오스領土 내에 ‘聖域’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지역에 있었던 CPT의 훈련소, 병원, 물자저장소 등을 철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캄푸치아사태를 둘러싸고 급진전된 中共과 泰國政府간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수렴화와 관련, CPT는 중요 외부지원세력인 中共으로부터의 물자 및 군사원조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캄푸치아사태에 따른 제반 타격으로 CPT는 泰國 동북부지역의 태크(Tak) 치엥라이(Chiangrai)省 등에 있었던 영구기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2) Kanok Wongtrangan, "The Revolutionary Strateg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ailand: Change and Persistence," in Lim Joo-Jock & Vani S. (eds.), *op. cit.*, p. 136.

아울러 CPT의 세력약화를 촉진시킨 또 다른 요인은 CPT 내의 親中共세력과 民族主義세력간의 내부 葛藤과 分裂이다. 이러한 CPT 내의 역사적으로 고질적인 派閥간의 葛藤은 캄푸치아사태에 따른 中共의 태도변화로 더욱 첨예화 되었다.

이와 같은 베트남의 캄푸치아침공사태를 둘러싼 泰國, 中共, 베트남간의 戰略的 利害關係의 변화에 따른 CPT에 대한 제반 치명적인 사태발전과는 별도로 CPT의 내부적인 취약성을 노정시킨 사태가 1976년 10월 泰國의 軍事쿠데타 발생시 CPT에 가담했던 學生, 文人, 言論人 등 뿐만 아니라 방콕 등 都市의 左派 인텔리계층들의 소위 ‘정글지대에서의 귀환’(return from jungles)事態이다.³³⁾

1973년 10월 泰國軍事政權을 무너뜨리고 1976년 10월까지 民間政府主導에 의한 泰國의 民主化에 참여했던 이들 左派 인텔리계층들은 군사쿠데타가 發生하자 대거 CPT의 활동기지인 CPT에 가세했던 것이다. 泰國政府의 大特赦政策에 따라 귀환한 이들 都市地域의 左派 인텔리들에 의해서 밝혀진 CPT의 취약점은 ① CPT指導勢力의 親中共편견, ② 이들指導勢力의 農村을 중심으로 한 毛의 革命戰略에 대한 無批判的 依存態度 등이다. 이 결과 CPT에 同調勢力이었던 學生 등 左派인텔리들은 CPT의 革命路線, 이데올로기 및 戰略, 戰術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끝으로 CPT세력확장에 제동을 건 것은 泰國政府의 효과적인 CPT게릴라退治作戰이다. 제 2차대전후 泰國는 美國과의 協力하에 共產勢力退治를 위하여 軍事정책위주의 강경정책을 펴왔다. 이러한 泰國의 對 CPT軍事강경정책은 越南戰爭기간 중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美國의 越南戰에서 후퇴 및 對泰國 군사원조 등의 감소를 계기로 하여 泰國는 보다 獨自的인 叛徒退治政策을 펴기 시작하였다. 80년대 들어서면서 泰國는 이른바 ‘C—P—M’(Civilian, Police and Military) 3重 게릴라平定作戰을 바탕으로

33) Yuangret Wedel, "The Thai Radicals and the Communist Party" (Singapore: Maruzen Asia, Occasional Paper No. 72).

하는 社會・經濟의 접근책을 펴으로써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³⁴⁾

이와 같은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이에 따른 CPT 指導勢力의 ‘自己適應’(self-adaptation)능력의 결여로 1979년 이후 CPT 세력은 급격하게 약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CPT의 勢力이 絶頂에 달했던 1978년경에 CPT의 전투조직인 「泰國人民解放軍」(the People's Liberation Army of Thailand; PLAT)은 1968년 1,500~2,000 규모에서 12,000명으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CPT는 자기들의 3단계의 戰略的 革命단계중 제1단계인 ‘戰略的 방어단계’에서 다음단계인 ‘교착단계’(stalemate stage) 및 ‘공세단계’(offensive stage)로 넘어가지 못했다.³⁵⁾ 다시 말하면 PLAT는 단 하나의 都市도 점령할 수 있는 지구전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었다.

1979년을 기점으로 CPT 세력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CPT의 활동거점이었던 泰國 東北部 및 北部의 PLAT 게릴라들은 거의가 진압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泰國陸軍 作戰參謀이었던 차오와리트(Chaowalit)少將은 16년간이나 끈 게릴라진압이 거의 모든 PLAT의 기지가 파괴되고 게릴라들은 혼란에 빠짐으로써 중지부를 찍고 있다고 1981년 언급한 바 있다.³⁶⁾

이와 같은 게릴라기지의 손실과 함께 CPT는 상당수의 당원들이 탈주하는 사태를 맞게됨으로써 더욱 약화되었다. 예컨대, 1981년 1명의 지역 위원회 위원, 6명의 省위원회 위원, 18명의 군단위 위원회 위원 등의 탈주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CPT의 약화추세에도 불구하고 CPT 정치국의 실권을 쥐고 있는 華僑出身의 뷔라트(Virat Angkhatavorn, 일명 Chang Yuan)등 親中共系 指導勢力은 자기들의 黨내 실권의 상실을 우려하여 CPT의 현실변화에 대

34) Weatherbee, *op. cit.*, p. 173.

35) Kanok Wongtrangan, *op. cit.*, p. 136.

36) *Bangkok Post*, 27 October 1981.

한 적응노력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CPT의 主要 戰略 및 戰術

CPT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泰國이 帝國主義者, 封建地主 및 官僚的 資本家들에 의해서 착취를 받고 있는 ‘半植民, 半封建社會’로서 反動的 支配階級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의 탈피를 위해서 ‘民族的 民主革命’(a national-democratic revolu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⁷⁾

물론 CPT의 民族的 民主革命論의 요체는 CPT가 국가권력을 장악, 泰國의 社會主義革命을 겨냥하여 CPT의 지도하에 民主政府를 세운다는 것이다.

위의 分析에서 명백한 바, CPT는 外部 帝國主義勢力 및 內部 封建地主 및 官僚的 資本家그룹의 ‘敵’에 대해서 社會主義革命이 아닌 ‘民族的 民主主義革命’을 제 1차 課業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民族的 民主革命달성을 위하여 CPT는 ① 無產階級, ② 農民, ③ 知識層, 學生 小商人등 쁘티 부르조아階級, ④ 民族的 부르조아(national bourgeois), ⑤ 愛國 및 民主主義지지층 등을 자기들의 革命路線의 지지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CPT는 초기단계의 民族的 民主革命을 달성하기 위한 革命戰略으로 ‘人民戰爭’戰略을 채택하고 있으며, 동 전략 수행을 위한 3가지 基本裝置로 ① 黨組織, ② PLAT, ③ 聯合戰線을 꼽고 있다.

CPT는 1961년 毛의 思想에 입각한 ‘武裝鬭爭’戰略을 채택, 1965년 9월 CPT 정치국에서 동 전략을 실천에 옮기기로 결정한 이후, ‘農村으로부터의 都市포위전략’을 주축으로 하는 毛의 革命戰略에 대해서 본질적인 수정을 가해 본 적이 없다. 즉 ① 武裝革命을 위하여 農村地域의 農民動員, ② 農村地域의 革命基地設置, ③ 都市점령 및 反動政府의 基盤파괴 등 3단계로 구성되는 毛의 革命戰略이 泰國의 조건에의 適合性여부에 대한

37) Kanok Wongtrangan, *op. cit.*, pp. 141~142.

논쟁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毛의 戰略에 대한 指導部의 일방적인 추종에 대한 비판의 요체는 泰國의 상황과 조건하에서는 ‘農村으로부터의 都市포위’ 戰略이 泰國 農民들의 革命的 잠재적 革命역량의 결여 및 泰國의 經濟發展에 따른 都市의 大衆動員能力면에서의 결함 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1976년 10월 軍事구메타에 따른 都市의 左派인테리들이 CPT에 가담, CPT 지도층과의 논쟁에서 상기 CPT의 農村中心의 革命戰略을 맹렬히 비판하였으나, CPT 指導勢力은 毛의 戰略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알려졌다.

CPT는 산하 전투조직인 PLAT는 ‘상비군’(permanent soldiers)와 ‘부락군’(village soldiers)으로 분리되어 있다. 상비군은 현대식무기를 갖추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省中央委員會의 지시에 따라 어느 지역이고 동원될 수 있는 반면, 부락군은 특정지역에 주둔, 주 전투세력인 상비군을 도와 大衆動員의 임무를 맡는다.³⁸⁾

그러나 대부분의 PLAT 게릴라들은 貧農출신의 농민들과 高地帶 部族, 특히 후몽(Hmong)族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피압박 및 억압의 체험과 관련, 政治意識 및 革命的 動機는 강하지만, 저지대 泰國農民들로부터 경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CPT의 泰國 저지대 및 중앙지역침투에는 역기능적으로 작용했다.

CPT도 CPM과 마찬가지로 泰國 남부의 回敎徒不滿勢力을 자기들의 革命戰略으로 利用하려고 기도했다. CPT는 실제로 1979년 「모스렘 人民解放軍」(MPLA)을 泰國南部에 창설하였다. CPT의 回敎徒들에 의한 武裝分離主義運動을 이용한 戰略은 주로 泰國政府軍의 分離主義者들에 대한 과도한 학대등 주로 平定作戰의 실패때문에 성공을 거두었다. 이 지역에서의 CPT作戰의 특징은 泰國東北部 및 北部지대와 달리 政府基地를 습격, 무기 및 기타 물자를 보급하는 등 ‘自立’(self-reliance)의 方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宗教 및 言語의 차이는 물론, CPT의 親中共이

38) Ibid., p. 152.

미지 등의 제약요인으로 CPT가 泰國 남부지역에 CPT의 革命基地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⁹⁾

(4) CPT의 外部勢力과의 連繫關係 및 土着化 問題

ASEAN 제국내 CPs 중 CPT가 70년대말 中共·베트남간 葛藤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中共의 라오스를 통한 CPT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CPT 게릴라전투력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이는 단적으로 CPT가 어느만큼 中共의 지원에 의존해 왔는가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革命이데올로기, 戰略, 및 軍事 物資支援 등 제 부문에서 CPT는 거의 전적으로 中共(CCP)에 의존해 왔다. 中·蘇紛爭은 물론, 中共과 베트남紛爭에 있어서도 CPT는 中共을 支持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전술한 바와같이 베트남 및 라오스 등 印支共產國家들은 자국영토내의 CPT의 훈련소 및 보급창 등 ‘聖域’을 축출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CPT의 農村을 바탕으로 한 毛의 革命戰略에 대한 ‘노예적 집착’(slavish attachment)에 대해서 경고함과 동시에 CPT를 포함한 毛思想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ASEAN CPs들을 ‘毛思想을 가진 폭도집단’(Maoist bandits)이라고 극렬히 비난했다.

실제로 CPT의 毛思想 일변도의 戰略的 고수는 CPT의 전략적 결함을 노정시켰다. 전술한 바, 1973년 10월 左派인테리 및 中產層의 民主革命 불기사태시 CPT는 무기력을 노정시켰다. 이념적으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CPT는 泰國 國內政治過程의 主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베트남은 泰國 共產主義者들이 평야지대 및 都市지역을 포괄하는 戰略을 擴大·開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⁴⁰⁾

아울러 전술한 바 1976년 10월 CPT에 가세했다가 탈주한 세크산(Sek-san Prasertkul), 티이에라유티(Thirayutt Boome), 프리디이(Pridi Boon-

39) *Ibid.*, p. 153.

40) Santi Mingmongkol, "Thai Resistance Caught in the Crossfire," *Southeast Asia Chronicle*, 79 (August 1981), pp. 13~17.

sue) 등 急進主義者들도 CPT의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을 비판하고 泰國의 경우 都市中産階級을 잠재적 革命勢力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CPT가 毛의 戰略을 그대로 泰國에 이식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오류라고 지적했다.

CPT의 指導勢力도 泰國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都市의 浸透를 통한 大衆運動이 革命過程에 있어서 決定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黨主導權의 상실을 우려하여 親中共系 指導勢力이 이들 방향으로의 전략수정을 저지하는 것 같다.

일부 戰術의 次元에서 CPT가 政治 및 軍事兩面에서 ‘정글’, ‘평야’ 및 ‘都市센터’ 등 ‘3개의 戰略地帶’(Three Strategic Zones)를 구축하고 있다고 탐문되고 있으나 CPT의 본격적인 土着化過程은 현 단계에서 요원한 것 같다. 東南亞 專門家인 웨더비(Donald E. Weatherbee)는 1976년 10월 軍事쿠데타로 CPT에 가세한 많은 左派인테리들이 CPT에 잔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CPT에 대한 進路 및 戰略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을 CPT 黨수뇌부가 수용할 때 비로소 CPT의 土着化 問題가 본격적으로 論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⁴¹⁾

IV. 結 論

앞의 분석에서 ASEAN 제국내 共產主義運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약 및 연구결과(research findings)의 도출과 아울러 전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SEAN 제국은 ASEAN 地域協力體制를 중심으로 착실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ASEAN CPs에 대한 平定化政策은 필리핀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둘째, 특히 70년대 말, 베트남의 印支地域霸權政策을 둘러싼 베트남,

41) Weatherbee, *op. cit.*, p. 177.

蘇聯, 中共 등 共產圈의 내부 葛藤과 分裂은 ASEAN CPs 에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中共의 支援에 의존해 왔던 親中共系 말레이시아의 CPM 과 泰國의 CPT 는 東南亞지역의 公산세력간 ‘極化現狀’(polarization)에 따른 中共과 泰國 등 ASEAN 제국간 베트남전제 측면에서의 戰略的 利害關係 收斂화와 관련, 中共의 ASEAN CPs 에 대한 支援中斷사태로 1970년대 말부터 급격한 세력의 약화추세를 감수하게 되었다. 이 결과 이들 CPM 및 CPT 의 體制挑戰能力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약화되었으며, 현재는 이들이 ‘邊方의 暴力’ 단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稀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째, 이와 같은 CPM 및 CPT 勢力的 약화추세는 中共의 외부지원단절이라는 요인과 함께 이들의 戰略上的 결합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CPM 의 경우는 말레이시아의 특유한 ‘人種社會’에서 華僑를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小數民族運動’이라는 이미지의 불식과 아울러 말레이시아의 특유한 말레이, 華僑, 印度系 種族으로 구성된 현실적인 ‘種族分布의 특수성’의 收容 등 土着化에 실패했다. 한편 CPT 는 泰國의 條件과 狀況에 비추어 ‘不適合’한 毛의 農村中心의 戰略을 고수함으로써 泰國 政治의 본산인 都市지역을 의면했을 뿐 아니라 이의 浸透에 실패했다. 이 점에서 泰國 CPT 의 土着化의 과정은 都市의 인테리 및 中產層의 浸透인데도 불구하고 親中共路線의 CPT 指導勢力은 黨내 主導權 상실을 우려 CPT 의 土着化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네째, 필리핀의 CPP 는 마르코스 장기독재집권에 따른 필리핀의 정치·경제·사회 등 제 부문에서의 구조적 파행성과 갈등을 이용, 상당한 세력으로 급성장하였다. ‘CPP-NPA-NDF’의 連繫를 바탕으로한 CPP 의 게릴라戰鬪와 政治攻勢를 併用한 戰略이 상당한 정도로 성공을 거둔 것은 CPP 가 필리핀의 地理的 條件과 政治狀況에 맞게 共產主義運動을 ‘土着化’시킨 데에 기인된다. CPP 의 이데올로기적 柔軟性, NDF 등 정치적 전위조직을 통한 敎界, 學界 등에서의 浸透 및 초기부터 외부 共產勢力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은 自立化 戰略 등을 CPP의 土着化 성공의 要因들로 꼽을 수 있다.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政府는 6개월간의 NPA에 대한 休戰을 선포, 協商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아키노 政府의 이러한 平定化 政策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현단계에서 ASEAN CPs들은 체제 전복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으로 ASEAN 제국이 갖고 있는 제반 문제점, 즉 빈부의 격차, 都市와 農村의 「갭」, 장기적인 權威主義體制의 執權에 따른 국민의 정치의식의 발전과 이에 따른 정치적 참여요구 증대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허구일 망정, '동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CPs에 의한 共產主義運動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